
2010 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주요결과

자료제공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880-5499)

1. 조사의 목적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은 1964 년 이래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의 일반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신입생 현황자료집을 발간하여 왔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의 학사정책 수립 및 학생지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조사의 대상

▶ 2010 학년도 입학생 3,445 명 중 1,409 명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입생의 40.8%이다.

3. 조사의 내용

▶ 신입생의 특성을 ‘일반 특성’, ‘대학생활’, ‘대학입학 및 전공선택’, ‘교육요구’, ‘진로 희망’, ‘인간관계’, ‘사회적 의식’ 의 일곱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1) 일반 특성 : 인구 통계적 특성(성별, 주 성장지역, 졸업 고등학교 유형, 재수 여부, 종교 등), 고등학교 생활과 관련된 특성(만족도, 과외지도 경험, 학업성취의 귀인 요인 등), 가정 환경 특성(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및 지각된 사회계층).
- 2) 대학생활 : 대학입학 후 생활과 관련된 특성(입학 후 거주예정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자 등),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대학생활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 교수에 대한 기대, 자원봉사 참여의사, 현재 문제, 인터넷 활용,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 3) 대학입학 및 전공선택 : 대학입학과 관련된 특성(본교 지원에 가장 영향을 준 매체 혹은 대상, 본교를 선택한 이유 등), 계열선택 및 학업에 대한 태도(선택에 영향을 준 매체 혹은 대상, 선택 시

고려사항 및 선택 시기, 원하는 전공과 현재 소속 학과/계열/학부의 일치도, 복수전공 의사 및 복수전공시 희망 단대 등).

4) 교육요구 : 신입생이 대학교육에서 기대하는 다양한 교육내용(전공관련 지식, 직업관련 지식, 영어 능력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자신의 현재 수준 및 중요도.

5) 진로 희망 : 신입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희망하는 직업 및 직업선택에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요인.

6) 인간관계 : 신입생들이 현재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간관계의 중요성 평가, 자신의 사회적 호감도 평가, 사회적 기술, 대학생활에서 예상되는 교우관계 및 어려움 등).

7) 사회적 의식 : 신입생들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성향 및 대북 의식.

4. 조사의 주요 결과

1) 일반 특성

▶ 주 성장 지역

서울지역 학생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연도별 추이(단위:%)

	서울	광역시 (인천제외)	수도권 (인천, 수원, 의정부 등)	도시지역	읍면이하	국외	응답자수	신입생수
2002	38.5	22.8	12.7	19.2	4.1	2.7	3331	4062
2003	39.3	21.9	13.5	20.0	3.2	2.1	2689	4158
2004	39.1	20.4	15.6	18.0	5.1	1.8	2624	4068
2005	35.8	24.0	15.5	17.0	5.5	2.2	2413	3366
2006	36.5	20.1	17.8	17.2	6.0	2.4	2049	3470
2007	35.1	20.4	18.5	16.6	6.3	3.1	1856	3311
2008	35.8	19.7	19.3	16.2	5.8	3.0	2544	3328
2009	35.9	17.7	22.0	15.7	5.3	3.4	2790	3348
2010	33.1	17.9	20.4	18.7	5.4	4.5	1409	3445

▶ 과외경험 및 과외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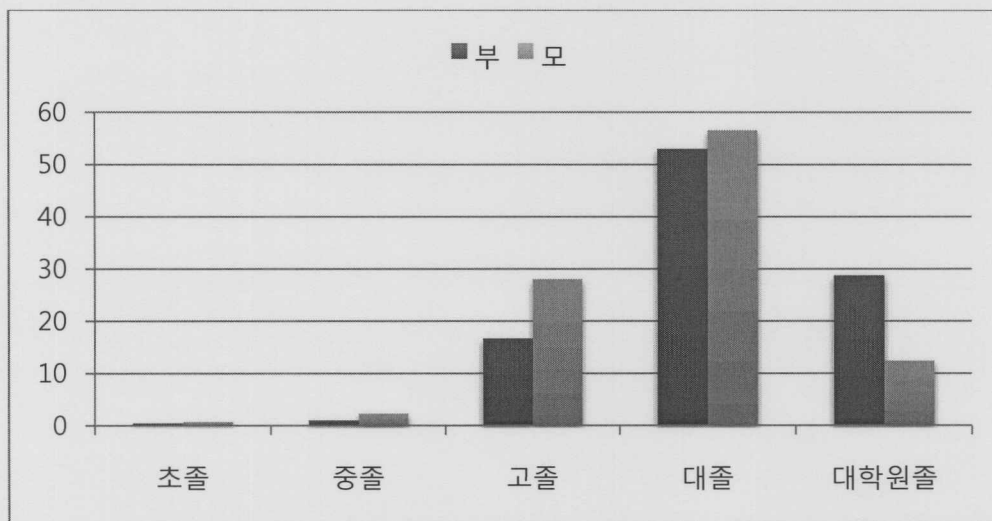
응답자의 67.9%가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학원과외 경험이 31.8%, 개인과외 경험이 28.6%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단위:%)

	학원과외	개인과외	그룹과외	입주과외	경험없음	기타
2002	57.3	34.9	18.1	0.2	28.9	0.5
2003	49.3	16.2	3.6	0.0	30.8	0.2
2004	54.9	42.2	19.6	0.5	26.5	1.2
2005	54.2	41.4	22.7	0.5	25.0	1.2
2006	53.9	43.7	22.2	1.0	27.2	0.8
2007	47.3	42.0	22.0	0.4	29.2	0.8
2008	48.5	41.1	22.6	0.7	29.0	1.1
2009	46.0	40.2	21.9	0.5	30.5	0.8
2010	31.8	28.6	14.5	0.7	32.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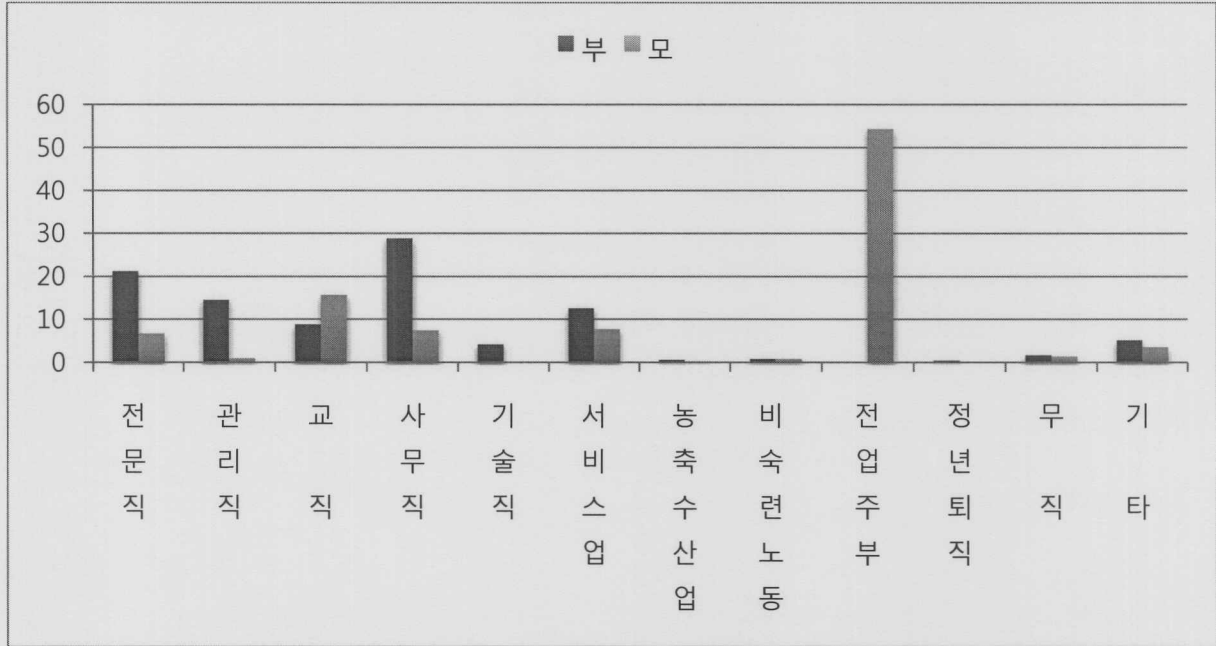
▶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53.0%), 대학원(28.8%), 고졸(16.7%)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대졸(56.5%)이거나 고졸(28.1%)이었다.



▶ 부모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비율은 사무직(27.4%), 전문직(20.0%), 경영·관리직(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59.6%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 직업의 연도별 추이(단위: %)

연도	전문직	경영/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기술직	판매/서비스업	농축수산업	비숙련노동	전업주부	정년퇴직	무직/실업자	기타	응답자수	신입생수
2003	18.9	20.5	6.8	24.4	6.5	15.1	2.8	0.8	0.0	0.7	1.9	1.7	2568	4158
2004	18.5	18.7	7.0	23.2	7.2	18.1	2.0	1.3	0.2	0.8	1.5	1.6	2496	4068
2005	19.2	17.9	8.2	24.2	7.2	16.1	2.1	1.0	0.1	0.6	1.6	1.7	2306	3366
2006	21.1	19.6	7.1	25.2	6.1	14.6	2.1	1.0	0.1	0.8	1.1	1.3	1964	3470
2007	19.1	17.8	8.6	28.0	5.4	13.6	1.7	1.2	0.1	0.7	1.9	1.9	1784	3311
2008	20.0	17.8	7.8	27.4	5.0	14.2	1.8	1.3	0.0	0.5	2.1	2.1	2459	3328
2009	20.8	16.4	8.1	27.7	5.5	14.7	1.3	1.3	0.0	0.5	2.2	1.5	2659	3348
2010	21.3	14.6	8.9	28.9	4.3	12.7	0.7	0.9	0.1	0.5	1.8	5.2	1359	3,445

2) 대학생활

▶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학업을 선택한 비율(38.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폭넓은 대인관계(24.1%)와 교양습득·인격완성(15.8%) 순이었다.

▶ 교수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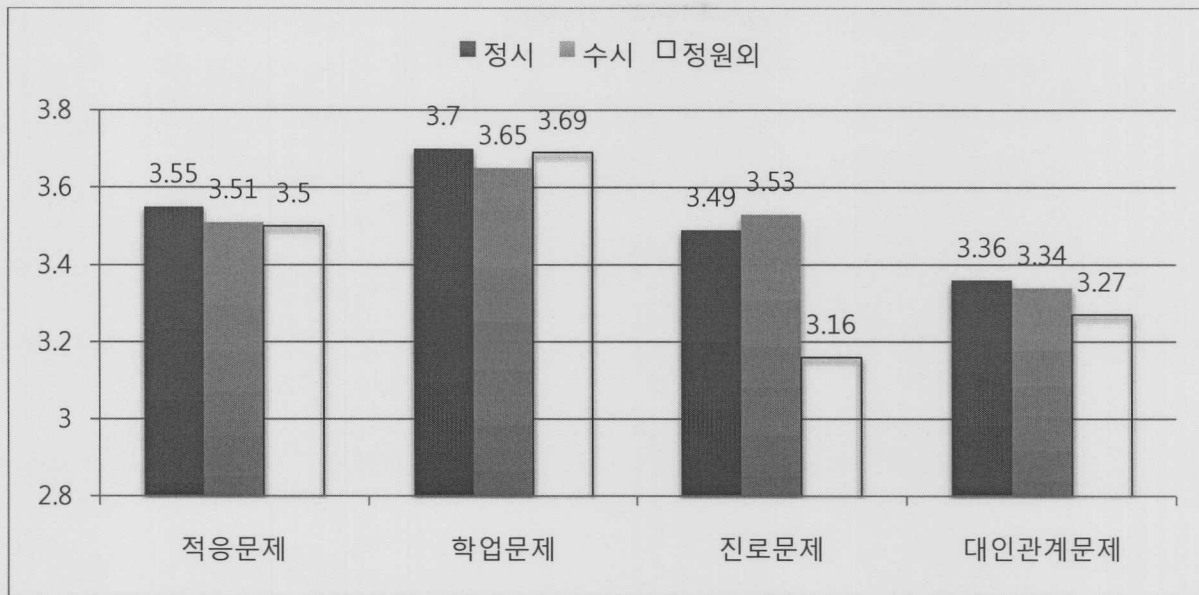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수에 대해 전공지도를 기대하는 비율(37.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간적인 유대를 기대하는 비율(33.1%)이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단위: %)

	인간적 유대	전공지도	인생관 조언	전공외 학문지도	사회문제 논의	기타	응답자수	신입생수
2003	34.4	38.7	13.6	9.4	2.8	1.1	2687	4158
2004	31.5	42.3	12.7	9.1	2.9	1.5	2614	4068
2005	31.0	45.3	12.8	7.6	2.5	0.8	2413	3366
2006	31.3	42.7	15.3	8.1	1.7	0.8	2038	3470
	인간적 유대	전공지도	인생관 조언	진로지도	사회문제 논의	기타	응답자수	신입생수
2007	34.5	36.9	12.6	13.4	2.5	0.3	1856	3311
2008	35.5	36.1	11.0	14.5	2.8	0.2	2538	3328
2009	36.1	35.1	12.3	13.5	2.7	0.4	2787	3348
2010	33.1	37.3	12.4	14.1	2.9	0.2	1409	3445

▶ 현재 문제

13 개 문제에 대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학업 문제, 적응 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 문제 순으로 그 평균이 높았으며, 정시 모집 신입생에 비해 수시 모집 신입생이 이 4 가지 문제에 대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3) 대학입학 및 전공선택

▶ 조사에 응답한 신입생들 중 대다수(91.3%)가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계열/학부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1.0%는 현재 소속 학과/계열/학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소속 학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67.8%가 현재 학과/계열/학부를 다니면서 전공을 바꾸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복수전공, 편입, 전과, 고시, 자격증, 유학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진로를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수전공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신입생의 10.4%만이 의사가 없다고 답해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복수전공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 희망 단대는 경영대, 사회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주위 권유나 성적을 주로 고려하여 학과/계열/학부를 선택한 신입생들이 복수전공의사가 가장 많았다.

▶ 소속 학과/계열/학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응답자의 약 21.5%는 충분한 정보 없이 학과/계열/학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학과/계열/학부를 선택할 때 주로 고려한 사항과 선택 시기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원서접수기간에 학과/계열/학부를 선택한 신입생의 경우 성적을 주로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중학교 이전에 학과/계열/학부를 선택한 신입생의 경우 적성을 주로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입학 당시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전공학과 선택 시 31.9%가 대학원생, 졸업생 전문가와의 대화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26.5%는 학부 재학 중인 선배와의 대화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3.6%였다.

4) 교육요구

① 신입생들이 자신의 현 수준을 높게 지각한 상위 3 개 항목은 팀협동 과제수행 능력, 선후배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논리적·과학적 사고력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한 3 개 항목은 영어 글쓰기 능력, 영어 회화 능력,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지식으로 나타났다.

② 신입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각한 상위 3 개 항목은 전공관련 지식·기능·안목,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지식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한 3 개 항목은 예술적 소양 및 안목, 비판적 독서 능력,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화 능력으로 나타났다.

③ 신입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지각한 현 수준이 낮은 교육내용으로는 전공관련 지식·기능·안목,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지식, 영어 회화 능력, 영어 글쓰기 능력, 구두발표 및 토론 능력에서는 현재 수준은 낮은 편이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더 뚜렷한 교육요구를 시사하였다. 반면 예술적 소양 및 안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차를 나타내었다.

5) 진로 희망

▶ 원하는 직장 형태

졸업 후 원하는 직장형태로는 각종 연구소 및 대학(28.2%), 전문직(24.0%) 대기업 및 국영업체(13.4%), 국가기관(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연구소 및 대학을, 여학생은 전문직을 가장 선호하였다. 신입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자아실현(67.0%)이었다.

※ 연도별 추이(단위: %)

	대기업/ 국영업체	국가 기관	법조계 (사법 고시)	방송/ 언론계	금융계	외국인 회사	벤처 기업	연구소 /대학	각종 전문직	자영업	기타	응답자수	신입생수
2002	6.4	14.0	7.4	3.6	1.0	3.5	5.9	26.2	25.0	4.1	2.9	3316	4062
2003	10.1	14.6	8.0	3.2	1.1	2.7	4.2	25.5	24.2	3.6	2.9	2674	4158
2004	9.5	19.7	6.5	3.9	1.3	2.4	2.5	24.2	24.5	3.2	2.2	2603	4068
2005	12.4	18.8	6.7	3.0	1.3	3.0	2.0	24.6	23.4	3.1	1.3	2392	3366
2006	13.8	18.2	9.1	3.1	1.9	3.1	2.8	19.5	23.3	3.2	1.9	2037	3470
2007	13.0	19.0	8.4	3.6	3.3	2.9	1.9	20.3	22.3	2.4	2.8	1854	3311
2008	12.4	15.5	6.9	3.3	5.1	3.6	2.4	21.8	22.1	3.6	3.6	2524	3328
2009	12.6	17.7	5.6	3.1	4.1	2.6	3.1	22.1	23.2	2.9	3.0	2771	3348
2010	13.4	12.9	2.9	3.2	3.8	2.3	2.8	28.2	24.0	3.3	3.0	1407	3445

6) 인간관계

① 현재의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신입생이 전체 응답자의 48.5%였다. 현재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신입생이 전체 응답자의 73.6%였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신입생은 23.6%였으며, 35.8%는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40.6%의 신입생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신입생(응답자의 77.7%)이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수(%)
친구관계 만족도	3.42	26(1.8)	171(12.1)	529(37.5)	552(39.2)	131(9.3)	1409(100.0)
가족관계 만족도	3.98	13(0.9)	78(5.5)	280(19.9)	593(42.1)	444(31.5)	1408(100.0)
외로움 경험 정도	2.77	152(10.8)	419(29.8)	504(35.8)	269(19.1)	64(4.5)	1408(100.0)
불만, 분노 경험 정도	1.92	482(34.2)	612(43.5)	266(18.9)	36(2.6)	12(0.9)	1408(100.0)

(*평균 산출방법: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②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 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4.3%로, 대부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정도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신입생이 전체 응답자의 41.6%, ‘보통이다’ 고 응답한 신입생이 53.3%였다.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정도에 있어서 ‘보통이다’ 고 응답한 신입생이 전체 응답자의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 는 응답이 22.1%,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28.0%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잘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보통이다’ 고 응답한 신입생이 전체 응답자의 4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 는 응답이 27.8%로 나타났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나 장기자랑을 잘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41.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교시절에 비교해서 대학생활의 교우관계가 ‘더 힘들 것이다’ 는 응답이 46.9%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의논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72.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수(%)
인간관계의 중요성	4.39	3(0.2)	7(0.5)	70(5.0)	689(48.9)	640(45.4)	1409(100.0)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정도	3.41	7(0.5)	65(4.6)	751(53.3)	515(36.6)	71(5.0)	1409(100.0)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정도	2.95	65(4.6)	395(28.0)	563(40.0)	311(22.1)	75(5.3)	1409(100.0)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정도	3.12	21(1.5)	298(21.2)	636(45.2)	391(27.8)	62(4.4)	1408(100.0)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나 장기자랑을 잘 하는 정도	2.45	220(15.6)	579(41.1)	404(28.7)	162(11.5)	43(3.1)	1408(100.0)
고교시절에 비해 대학생활의 교우관계가 더 쉬울 것이다	2.41	176(12.5)	660(46.9)	419(29.8)	131(9.3)	22(1.6)	1408(100.0)
어려움 의논 상대가 있는 정도	3.85	11(0.8)	50(3.5)	327(23.2)	778(55.2)	243(17.2)	1409(100.0)

(*평균 산출방법: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③ 응답자의 88.8%가 현재 이성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 가 72.9%인 반면, ‘불만족스럽다’ 와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 6.6%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이성교제시 성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사랑한다면 가능하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5.4%).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성교제시 성관계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움을 시사한다.

7) 사회적 의식

▶ 정치적 성향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는 '중간' 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1.2%,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34.7%였다.

▶ 대북 의식

응답자의 59.7%는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 으로 인식하였으며 22.7%는 '주의해야 할 경계 대상'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협력해야 할 대상' 이라는 응답이 다소 적었고 '주의해야 할 경계 대상' ,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 이라는 응답은 다소 많았다.